



엄마젓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

이상섭/후생신보 취재부장

어 세상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겨우내 움추렸던 가슴을 활짝 열고 기지개를 편 봄꽃들이 —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뛰노는 아이들의 힘찬 몸짓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내음이 찾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조잘조잘 떠들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봄을 만끽하는 미래의 동량들의 환한 얼굴에 생동감이 넘쳐 흐른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명의 고귀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며칠 전 동생네 가족들과 인천대공원을 찾았다. 숨막히는 교통전쟁을 이겨내고 도착한 그곳에는 동심으로 돌아가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젊은 부부들의 가족애를 보았다. 사랑스런 아들과 두손을 맞잡고 굴렁쇠를 굴리는 청바지 아저씨,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방패연을 바라보며 어린 딸보다 더욱 흥겨워하는 미시아줌마, 새근새근 잠들은 아기를 안고 즐거워 하는 초보주부.

그날 인천대공원에는 일상에 지친 피곤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정겨움으로 가득찼다.

과거 우리 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회자된 적이 있었다.

요즘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할머니는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구먼"하며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다.

그때는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대신했고 새생명을 잉태하면 없는 살림이지만 정성을 다해 키웠다. 밭을 메다 가도 배고픔에 갠 아기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젓을 물리면 엄마의 포근한 숨결이 그대로 전해졌다.

궁핍한 생활은 분유 한통 살 수 없었고 미련스러운 정도로 외모에는 관심이 없었다. 장한 엄마들이 키워낸 아이들은 그러나 씩씩하게 자랐고 그림 거름은 우리 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엄마젓 먹이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한 '돌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정부의 인구조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회가 추진하는 캠페인인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이라/저 찬란히 빛나는 눈동자/엄마의 젓을 물고 아기가 웃는다/세상의 참 행복이 여기 있네-협회가 지난해 개최한 '엄마젓이 최고' 작품공모전에서 노래말 대상을 차지한 '아기의 노래'의 일부 분이다.

엄마의 젓은 무균상태로 신선하고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최상의 영양권이며 특히 아기들의 IQ, EQ발달에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엄마젓을 먹이는 습관을 가진 민족은 유방암의 발생빈도가 낮고 산후자궁수축, 체중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관련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중 최종아에 대한 모유수유율이 지난 '85년 59%에서 '97년 현재 14.1%로 툭 떨어졌다니 큰 격정이 아닐 수 없다.

상혼(商魂)에 멍들은 분유업체들의 앞다툼 광고로 인해 임신·출산부들의 엄마젓 먹이기 운동이 혼선을 빚고 있다니 이 또한 문제다.

세상을 보다 넓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엄마젓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아기들의 건강한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